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6 제3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778·7427 FAX 02·778·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6. 7. 10 발행인 :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동' 펼치기로

생명수호 · 저출산 해소 위해 노력하기로

● 한국평협 제1차 상임위 '생명존중 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7월 1~2



▣ 싣는 순서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사도직 단체〉

■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협의회

■ 한국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

■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일 서울 상지 피정의 집에서 ‘2006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생명수호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평신도 사도로서 직분을 다하기로 했다.

각 교구 평협 회장단과 교회운동·단체장, 서울평협 임원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홍순 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에서는 생명존중과 저출산 문제, 혼인과 이혼문제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상임위원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생명과학과 가톨릭교회 윤리’(이동익 신부, 가톨릭대) 강의를 들은 데 이어 이혼과 낙태, 저출산 등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와 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 큰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생명존중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성체성사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기기증 운동 확산에 나서기로 한 서울평협은 이날 전국 상임위에서 교구 성체대회 취지에 부응코자 사제성화의 날에 사후 장기기증서를 봉헌함으로써 생명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교구

사제단에 발맞춰 평신도들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 본당과 단체 차원에서 장기기증을 독려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군 영세자 신앙생활 지원사업 보고도 들어

상임위원회는 또 군 영세자 신앙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서울평협의 보고도 들었다.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단장인 팽종섭 서울평협 부회장은 “한해 2만명 이상 청년들이 군에서 세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제대 후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차원의 사목적 배려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서울대교구 평협은 군 영세자의 명단을 파악해서 각 본당에 연결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1차로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으로 이사업을 돋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평협 2006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의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단과 만남을 겸해 9월1일부터 이를간 부산 은혜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염수정 주교, 생명문화 창달에 노력 당부

염수정(서울대교구 총대리 겸 주교회의 평신

도사도직위원장) 주교는 민병덕 신부와 공동집전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이동축 일 파견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생명문제는 가톨릭신자라면 누구라도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



▲ 상임위원회에 참가한 각 교구평협 임원과 전국 단체장, 서울평협 임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이라며 “일관되고 지속적이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생명존중과 생명나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미사는 6월 27일에 선종한 수원교구 평협 전 회장이며 전국평협 전 부회장인 황재웅 마태오와 평협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기억하는 지향으로 봉헌됐다.

분임토의 결과와 대책

정기수 한국평협 부회장(광주평협 회장) 사회로 분임토의 결과를 다섯 개 분단별로 진행된 상임위원회의에서는 ① 자녀 하나 더 갖기 운동 : 입양 또는 출산을 장려 ②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 겨레의 생명을 살리자, 여기에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 ③ 여성의 몫이 크다. ‘손자 봐주기 운동’, ‘젊은 임산부 보호’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등 작은 표어 하나씩으로 실천운동을 해 나가면 어떨까? ④ 구호를 외치도록 캐치프레이즈로 호소력이 있는 운동으로 하면 좋겠다. ‘플러스 원, 귀한 생명 하나

더’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제안 ⑤ 새로운 운동의 시작은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가운동은 이미 절차가 정리된 상태이니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어떤가? ⑥ 교구 평협 차원에서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토의를 바탕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몇몇 사람이 생각해낸 구체적인 제의로서, “플러스 원”이란 것을 하자는 데에 공감했다.

둘째, ‘생명 하나 더’ 운동에 관한 캐치프레이즈를 각 교구 주보에 싣고, 운동 단체에서도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평신도주일 행사 논의

이날 상임위원회의에서는 오는 11월 19일 평신도주일을 앞둔 ‘평신도주간’(11.13~19) 행사와 전국 각 성당에 보낼 강론자료의 주제와 작성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는 없었으나, 사회와 대화하는 일로서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나중에라도 강

론 자료 주제 등의 의견을 한국평협 사무국으로 보내주면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본 회의에 앞서 각 교구평협의 회장단을 소개하고 있다.

● 한국평협, 아시아·오세아니아 수녀 장상들과 만남

“한국교회 역동적 모습에 감동”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5월 3일 제14차 AMOR(아시아·오세아니아 수녀장상연합회) 총회(4.24~5.4)에 참석한 세계 각국 수녀들을 초청, 만남의 행사를 열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수녀 장상연합회를 대표하는 98명의 수도자들이 참석한 AMOR 총회는 지난 4월 24일 수원 아론의 집에서 개막식을 갖고 ‘마리아와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여성수도자 – 관상적 예언자’를 주제로 열흘간 개최했으며, 이날 한국 평신도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 5월 3일 아울 총회 참석 수녀 초청 만찬에서 한국평협 한홍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평협과 서울평협 임원 등 모두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만남에서 한홍순 회장은 “지금 이 순간 한국과 아시아·오세아니아의 복음화에 실로 위대한 공헌을 하신데 대해 모든 수녀님들께 충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여러분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루까 10,42)인 하느님만을 선택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보여주신 가난과 겸소함, 정결과 진실함, 그

리고 순명하는 자기희생과 같은 조용한 모범은 ‘선의의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주변의 문화와 종교들뿐 아니라 가난하고 무력한 이들과 결실 풍부한 대화를 낳는 품위 있는 증거가 되어왔으며, 이는 봉헌생활을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한 특권적인 수단으로 만들어준다’(아시아교회44)”고 덧붙였다. 한회장은 끝으로 “이번 AMOR 총회가 아시아 교회를 쇄신해 더욱 그리스도님을 닮도록 해 새 천년대에 참 평화이신 그리스도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가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여러분과 일치해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광활한 대륙 아시아·오세아니아의 ‘깊은 데로 저어 나아갑시다’(루까 5,4)”라고 말했다.

AMOR 회장 메리 빈센트 수녀는 “한국 사회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의 역동적 신앙 실천 모습은 감동적”이라고 화답했다.

●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연주회

서울 명동에서 아키다 성령고교 핸드벨팀 초청 공연

한국평협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 문화관 코스트홀에서 정진석 추기경 서임 축하를 겸하는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연주회로 아키다 성령고교 핸드벨팀 초청 연주회를 열었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출연한 이날 연주회는 서울 성심여고 이세미양의 거문고 연주를 시작으로 명일동 본당 성가정 어르신 중창단의 중창, 연희동 바오로 성가대의 그레고리안 성가에 이어 아키다 성령고교 핸드벨팀

의 멋진 핸드벨 공연으로 1부 ‘평화 그리고 조화’를 마무리했다.

2부 ‘사랑 그리고 젊음’에서는 힙합댄스, 랩, 풍물놀이 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발랄하고 자유로운 문화를 표현했다. 이어서 명동 청소년 공간 ‘주’에서 한국과 일본 청소년 출연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우의를 다졌다.



●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 하노이 대교구장 끼엣 대주교 맞아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 겸 서울대교구 평협 회장은 6월 27일 오전 가톨릭회관 평협 사무실을 찾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 대교구장 고 꽝 끼엣 대주교를 맞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끼엣 대주교는 “어제 정진석 추기경님을 예방해서 한국 신자 수가 5백만을 넘어서고 최근 10년 사이에 74%나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난 이유를 여쭈었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평협 회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더라”면서 한국교회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에 한홍순 회장은 “이는 성령의 힘이며, 성령께 여쭈어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울대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반장과 구역장 등 활동가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레지오 마리애 등 신심

단체들이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말했다. 평협이 제공한 한국교회 신자 증가 표를 일별한 끼엣 대주교가 “1960년에 인구대비 1.8%로 45만2천명이던 신자 수가 20년 후에는 무려 10배가 넘어선 사실이 놀랍다”고 말하자 한홍순 회장은 “한국교회를 평신도들이 세웠다는 자부심이 각자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교회 성장과 선교에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열과 성을 다하게 된 것이고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친교의 교회를 이루면서 합심해서 일해 나온 성과”라고 덧붙였다.

끼엣 대주교의 이날 평협 방문에는 죄세프 반 디앙 하노이 신학교 부총장, 토마스 수앙 투이 하노이 교구청 관리국장, 서울대교구 최창화 몬시뇰, 민병덕 사목국장 겸 평협 지도신부,



▲ 방명록에 서명하는 끼엣 대주교



▲ 가운데 끼엣 대주교와 한홍순 회장, 민병덕 지도신부, 최창화 몬시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평협의 최홍준 사무총장과 이정희 국제협력부
과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다음은 하노이대교구장 끼엣 대주교가 이날
평협 사무실을 떠나면서 방명록에 서명한 내용
이다.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서울평협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활동에 크게
감명 받았습니다.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큰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끼엣 대주교”

● 한홍순 평협 회장, 세계 교회운동 단체 대회 참석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은 5월 31일부터 6월 2
일까지 로마 근교 로카 디 파파에서 열린 제 2
차 교회운동들과 새 공동체들의 세계대회에 참
석하고 7일 귀국했다.

교황청 평신도평의회가 지난 1998년 6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는 것
의 아름다움과 이를 증거하는 기쁨’이라는 주
제로 마련한 이번 세계대회는 전 세계 100여
단체 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교
회 지도급 인사들의 강의와 네오카테쿠메나토
창시자 키코와 라르쉬 공동체 창시자 장 바니
에 등이 참가한 패널토론, 분과토의 등으로 진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릴코대주교(맨 오른쪽)를 비롯해 세계 기톨릭 평신도 단체 지도자들이 1일 로마 외곽 로카 디 파파에서 열린 제2회 교회 운동들과 새 공동체 대회에서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행됐다. 또한 6월 3일 성령강림대축일 전야에
는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참석한 가운데 약 40만명의 여러 운동
과 공동체 회원들이 참석해 교회운동 새 공동
체들의 모임이 열렸다.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위
원이기도 한 한홍순 회장은 이번 대회가 “가톨
릭 교회운동과 공동체들이 자기 정체성을 좀더
분명히 하고, 보편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화
합과 연대를 통해 세상 복음화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
다. 한회장은 또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신
자 한 사람의 노력이 단체활동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단체는 단체중심주의를 버리고 여러 단
체와 힘을 합한다면 더욱 충실향 복음화의 결
실을 볼 수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덧붙
였다.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황, 제 2회 교회 운동·새 공동체 세계대회
에 메시지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오늘날 평신도 운동과
공동체들에 대해 그리스도 구원의 빛을 모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6월 3일 성령강림대축일 전야 성 베드로 광장에
도착, 환호하는 신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제2회 교회
운동과 새 공동체 세계대회 참석자들이 교황과 함께 했다.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것을 당부하면서 세계를 장악하려는 권력욕에 맞서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갈 것을 요청했다.

교황은 5월31일~6월2일 로마 외곽 로카 디 파파에서 열린 제2회 교회 운동 및 새 공동체 세계대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교황은 평신도 운동 회원들에게 사회와 문화계를 포함해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선교 정신은 (평신도) 운동을 더 활기차고 새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근간으로 더 나은 세상의 건설자가 되라고 당부하면서 자비는 더욱 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1998년 성령강림대축일을 앞두고 로마에서 열렸던 제1회 세계대회 때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으로서 참석했다.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스타니슬라프 릴코 대주교는 “평신도 운동과 활동이 무르익을 수록 주교와 본당 사제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평신도 운동 활성화를 성령의 은총으로 본다”면서 “그리스도와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은 복음화의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회 평신도 협회·운동·공동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의 봄’을 이뤘으나 교회 일부에서는 많은 운동과 단체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으며, 결국 단체 중 일부는 본당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거나, 그들 단체만이 진정한 그리스도교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쳐지거나, 또는 회원들의 삶을 너무 통제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이런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평신도 운동과 공동체들을 환영하고 또 교회 사명에 더 잘 봉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주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회운동 공동체들의 건전한 활동을 고무, 격려했다.

“가정의 가치 존중하고 수호하십시오”

교황, 세계가정대회서 호소

가정과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수호하기 위한 제5차 세계가정대회가 7월 1일부터 9일 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거행됐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9일 발렌시아의 예술과 학 공원에서 봉헌된 폐막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가정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영원한 결합인 혼인을 바탕으로



▲ 제5차 세계가정대회 폐막미사는 500여 명의 추기경과 450명의 주교단, 그리고 3천여 명의 사제단이 교황과 함께 집전했으며, 약 1500여 명의 신자들이 운집했다.



▲ 제5차 세계가정대회에 참가한 순례자들이 7월 8일 스페인 발렌시아 성모 광장에 운집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맞이하며 환호하고 있다.



▲ 한 여성과 수녀들이 스페인 발렌시아의 중심가에 있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대형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다”며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며 총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했다. 강론 도중 여러 차례에 걸쳐 참석자들의 환호에 말을 멈춰야 했던 교황은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는 그리스도교 가정은 혼인성사로 이들 부부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성사적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5차 세계가정대회는 가정 박람회, 신학과 사목대회, 가정 축제 등으로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차기 가정 대회는 2009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회장단과 사목국과의 만남

서울평협은 지난 5월 10일 오후 사목국 회의실에서 평협 회장단과 민병덕 국장 신부를 비

롯한 교구 사목국 사목사제들과 회합을 갖고 교구 내 각 운동·사도직·직능 단체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 본당 노년지도자 연수, “노인빈곤 해결 책 시급”

서울평협은 지난 5월 17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본당 노년지도자 연수를 가졌다. 본당 노년분과위원장과 위원, 노인대학, 노인관계 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한성대학교 황진수 교수의 ‘노인과 젊은이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주제로 1강의를, 종로성당 최성균 신부의 ‘노년기의 다양한 계층의 특성 및 빈곤실태’에 대한 2강의로 이루어졌다.

이날 ‘노인과 젊은이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주제로 첫 강의에 나선 한성대 황진수 교수는 서울 노원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1.3세대 함께하기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세대공동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됐으며 어린이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역시 프로그램 전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에 더 긍정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교구 노인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성균 신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노년기의 다양한 계층의 카리스마’를 주제로 한국 노인복지의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 최신부는 노인의 빈곤을 조명하면서 “최근 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상당수의 빈곤 노인이 가족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국가복지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노인빈곤의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그에 대한 큰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제2·3·4차 선교포럼

서울평협은 지난 5월 20일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우리는 본당의 아름다운 선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제2회 선

교포럼을 실시했

다. 김영대 루

도비코 전 광

주 세나뚜

스 단장의

구체적 선교

방안에 대한 강

의에 이어 본당과 개

인차원에서 선

교사의 역할

을 주제로

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

다. 김영대 전

단장은 강의를 통해

“평신도의 영적 수훈의 척도는 선교를 어느 정도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나는 지역의 선교사’란 사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6월 10일 제3차 선교포럼에서는 한홍순 평협 회장이 ‘평신도의 선교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선교는 교회 존재 이유이며, 평신도가 선교에 나서지 않는 것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선교일선에서 봉사하는 본당 선교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개최되는 선교포럼은 7월에는 8일 ‘북한선교’를 주제로 평협 민족화해분과위원장인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발제 강의를 했다.

<서울평협 회원 단체>

● 운전기사사회 정기 피정

서울대교구 운전기사사회(회장 오소남, 지도신부 민병덕)는 지난 5월 15일 다조, 5월 16일 가조, 5월 17일 나조 순서로 정기피정을 구산성당에서 열었다. 이번 모임은 민병덕(비오) 교구 사목국장 겸 지도신부와 사목국 김한석(토마스) 신부, 김 아가타 수녀, 한홍순(토마스) 교구 평협 회장의 열띤 강의와 음악봉사자들의 수고로 더욱 뜻 깊은 피정이 됐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조 회장 우종석(마르띠노) 형제는 “103위 한국성인 가운데 한 분인 김성우(안토니오) 순교자의 성지가 바로 옆에 있고, 조용한 한강변이라서 더욱 좋은 피정이 되었다”며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한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요즘 계속되는 불황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비록 짧은 하루의 피정이지만 많은 형제, 자매 기사 사도들이 영적 갈증을 해소했다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기사사도회 편집부 전남규 가브리엘〉



▲ 한홍순 토마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과 오소남 베드로 사도회총회장, 우종석 마르띠노 다조회장과 다조형제들의 기념사진.

● 가톨릭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정진석 추기경 서임 경축미사 봉헌

서울대교구 가톨릭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 서울대, 지도신부 박홍)는 한국가톨릭 교수협의회(한가협)와 함께 지난 6월 2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가톨릭대학교 총장 임병현 신부, 서강대 손병두 총장, 한홍순 평협회장 등 고문을 포함한 80 여명의 교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공동지도신부로 최기섭 신부(가톨릭대)를 추대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 공동 회장 임경수 대구대, 박영석 조선대)의 임원과 함께 서울 협의회 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김용자 전임회장(가톨릭대)에 대한 감사패 증정에 이어 장호완 회장이 “가톨릭 지성인의 교육 사도직 역할”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으며,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추기경 서임 경축미사가 봉헌됐다.

교수협의회 회원교수와 서울대학교 교직원, 학생을 포함한 300 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축미사에서 정진석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울러 생명윤리와 사회교리 문제에서 침묵만 지키는 가톨릭 지성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진석 추기경의 서임 후 첫 대학 방문과 미사 강론 내용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와 YTN 등 방송매체에서 기사화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어 정추기경과 박홍 신부 등 미사 공동집전 사제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경축 만찬이 진행됐다.



● 연령회연합회 새 회장 김종호씨

“연도교육을 온라인화와 젊은이들에게 연령회 활동을 적극 알릴 터”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지도신부 윤성호)는 하승건(예로니모 · 59) 회장이 개인사정으로 도중에 물러남에 따라 5월 3일 김종호(사도요한 · 56 · 목동본당) 부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정남 신부에 이어 새 지도신부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사무처장 윤성호 아우



구스티노 신부를 모신 연령 회연합회 새 회장에 뽑힌 김종호 회장은 연령회를 '젊은' 이미지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극소수지만 연

령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상장예식 전문교육을 수강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며 "연령회는 앞으로 젊은이들을 주로 선발할 계획인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연령회 활동은 돌아가신 이를 하느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이며 선교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말하는 김종호 회장은 2000년부터 목동본당 연령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해 상장예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본당 연령회장을 역임하고 연합회 부회장으로 봉사해왔다.

● 제3회 사랑·생명·가정 창작 사진공모전

서울대교구 평협은 가톨릭사진가회(회장 임효철)와 함께 제3회 사랑·생명·가정 창작 사진공모전을 마련한다.

인간의 삶과 가정을 중심으로 해 사랑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누구나 공모 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은 문화관광부와 가톨릭신문, 평화방송·평화신문의 후원으로 열리며 올해로 세번째다.

접수마감은 9월 20일이며 심사발표는 10월 16일에 평협 홈페이지와 개별통보로 이루어진다. 입상작은 서울 충무로 소재 싸이드림 포토 갤러리에서 전시하며 시상식은 10월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갖는다.

자세한 공모전 요강은 한국천주교 평협 홈페이지(<http://clak.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김대건 사제 성인 순교 160주년 행사 준비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명중 빙첸시오페레르, 지도신부 총대리 박종우 안드레아)는 교구 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김대건 사제 성인 순교 160주년 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유해순회기도분과(분과장 백원홍 파스칼 평협 부회장)와 동원분과(분과장 이제경 스테파노 평협 전례위원), 행사진행분과(분과장 한명애 마시마 평협 부회장) 등 3개 분과를 조직하고 매주 회합을 갖는 등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전교구(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는 오는 9월 20일(수) 오전 11시 충청남도 당진군 솔뫼성지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순교 16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8월 17일(목)오후 4시 대흥동 주교좌성당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성인 유해 순회기도를 시작한다.

8월 17일은 1845년 이날 상해에서 김대건 부제가 사제로 서품된 날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8월 17일 시작되는 유해순회기도는 전 교구를 4구역으로 나누어 4기의 유해가 각 본당을 순회하며 이틀이나 혹은 하루 유해공경예식을 갖게 된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인천교구 16대 평협 임원 연수피정



인천교구 평협(회장 고흥칠 베네딕토, 지도신부 최상진 야고보)는 지난 5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강화 예수 성심 전교수도원에서 올해 상반기 임원 연수피정을 가졌다. 교구 사목국장 최상진 지도신부를 비롯해서 사목국 장정순(엘리사벳) 수녀와 평협 임원 18명이 참석한 이번 피정 교육은 수녀원 성모동산에서 성모님을 위한 묵주기도와 평신도사도직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평협과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강의와 토론,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 본당 회장단 · 교구단체장 교육

인천교구 평협은 6월 3일(토) 오후 인천교구청 4층 강당에서 2006년도 2/4분기 본당회장단 · 교구단체장 교육을 실시했다. 110명의 본당회장, 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는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가 “복음화를 이루하는 데에는 본당 회장과 각 단체장들의 협조와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제 1강의를 맡은 미래사목연구소장 차동엽 로베르

토 신부는 “다빈치코드의 죽보”

를 통해 소설과 영화 등으

로 가톨릭교회를 그릇

전달하는 책동이 어떻

게 잘못됐는지를 조목

조목 제시해 “시원하

다”는 반응을 얻었다. 이

날 교육은 “선단

요가”를 주제로

한 제2강의 후

본당 회장들의

지구별 만남의

시간을 통해 친

교를 다졌다.



● 인천교구 꾸르실료 30차 울드레이아

인천교구 꾸르실료(주간 이종갑, 지도 최상진 신부)는 6일 인천 도원실내체육관에서 꾸르실리스타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교구 울프레이아를 갖고 새롭게 신앙을 다져나갈 것을 다짐했다.

‘물이 솟는 샘이 되어’(요한 4, 14)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꾸르실리스타들은 성직자 담화 및 평신도 체험에 이어 우정의 시간과 파견미사 등을 통해 세상 복음화에 앞장서고 사랑 실천과 사도직생활에 충실할 것을 결의했다. 또 판소리와 사물놀이 등 전통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 우정의 시간에는 꾸르실료회관 건립을 독려하는 성곡 ‘어우동’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이종갑(바오로) 교구 꾸르실료 주간은 대회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 목마름

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열심한 활동으로 영원한 갈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 꾸르실료 ‘영성관’ 기공식

수원교구 꾸르실료(주간 윤희, 지도신부 송현석)는 6월 6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죽산성지에서 제32차 교구 울뜨레야를 열고 꾸르실리스타들이 사도적 열정으로 무장한 복음화 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자 일어나 가자!(요한 14,31)’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꾸르실리스타 교육과 꾸르실료 활성화를 위한 영성관인 ‘이소사 아가다관’ 기공식도 아울러 거행했다. 연건평 4500여 평 규모로 어른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자들이 한번에 500여 명 까지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게 되는 이 영성관의 건립기금을 모으기 위해 수원교구 꾸르실리스타들은 개인당 하루 500원 모으기를 1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미사는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가 주례한 가운데 꾸르실료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함께 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공소사목협의회, 공소 임원 봉사자 여름연수

원주교구 공소사목협의회(회장 심경섭, 지도 박상용 신부)는 5월 20~21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공소에서 ‘연령 교육과 생태 복음화’라는 주제로 2006년도 공소 임원과 봉사자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 원주ME 큰나눔 모임

원주교구 장성본당 ME가족들이 2일 원주시 영서고등학교에서 열린 제9회 원주ME 큰나눔 모임에서 상부상조 정신을 담은 오색매듭 만들기(지경놀이) 공연행사를 열었다. 원주교구 ME협의회(대표팀 조동익 · 김희숙, 한상용 신부)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원주 ME가족



500여 명은 주제발표와 지구별 장기자랑, 교구장 김지석 주교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ME가족으로서 더욱 충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의정부교구

● 의정부교구 설립 후 첫 성령쇄신대회

2006 성령쇄신 의정부대회가 6월 8일 일산 마두동성당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뺑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아직 ‘평협’이 발족하지 않은 채 교구 설립 후 처음 열린 이날 대회는 성령쇄신봉사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체강복·강의·미사 순서로 진행됐다.

의정부 성령쇄신봉사회 김경모 지도신부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깨닫고 세상 살이의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 했다”며 “교구민들이 이 대회를 통해 자기중심 적 신앙에서 벗어나 열린 신앙으로 변화, 발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자들 중에는 “은총을 얻는 성령쇄신대회가 교구에서 처음 열려 기쁘다”며 첫 대회를 계기로 교구 성령쇄신운동이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의정부교구 ME 첫 가족모임

매리지 엔카운터 의정부협의회(ME, 대표 고백주·허경옥 부부, 지도신부 김현배)는 교구 설립 후 처음으로 지난 6월 6일 경기도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족모임을 열었다. ‘사랑하는 부부 은총 넘치는 가정’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본당 ME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는 교구 내 48개 본당으로부터 780여 명의 ME 가족이 참가해 부부의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성화와 이웃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 2 지구 지도신부 김영석 신부와 김영주(스테파노) 김진희(우슬라) 부부의 주제 발표로 막이 오른 이날 행사는 100여 명의 회원 가족이 함께 한 에어로빅과 꼭짓점 댄스, 수화 찬양율동, 심청전 등 다채로운 지구별 장기자랑, 미사 등으로 이어지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의정부교구장 이한택 주교는 이날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오늘 하루의 체험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라고 강조하고 “새 땅 새 하늘이 우리 각자와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꾸준히 질문하며 살 때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상임위원회 월례회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용기, 지도신부 김율석)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5월 15일, 6월 12일) 저녁 7시 상임위원회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준비와 수시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협의이다. 진행 과정은 복음나누기를 시작으로 회장인사와 경과보고, 안건토의로 이루어진다.

평협 회장단과 상임위원들은 제단체 지원에 관한 협의를 통해 5월 12일 학술회 주최의 한 솔 이효상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와 6월 4일 빠스카 성서모임 주최의 교구 청년성서 대회를 지원했고, 6월 6일 교구 울뜨레아에 참석해 꾸르실리스타들을 격려했다.

● 이용기 회장 중국 사제단과 환담

대구대교구 평단협 회장단은 5월 27일(토) 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대구를 방문중인 중국 상해교구를 비롯해 11개 교구의 교구장 2

명과 사제 11명을 맞이했다. 이용기 평협회장은 교구평협의 연혁과 활동상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을 가졌다.



● 제31회 교구장기 교회·직장 테니스대회



7월 4일(주일) 오전 8시 30분 개회미사를 시작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테니스구장에서 개최됐다.

경기는 단체전(본당 21팀, 직장 18팀)과 개인전(가족(부부)장년부 4팀, 남성 4팀, 여성 5팀)

으로 치러졌고 각 부문별로 시상이 있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된 단체전은 교회대항에서는 장성A팀이 우승, 육수B팀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성요셉성당과 범어성당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직장대항에서는 효성여자고등학교A팀이 우승, 무학고등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성의고등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B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우천으로 인해 한주 순연되어 행사가 열렸지만 많은 관계자들과 참가자들의 협조로 안전하게 마무리됐으며, 테니스 동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구민들이 함께 하는 사귐과 나눔의 잔치로 펼쳐졌다.

● 제3회 대구가톨릭예술제 2차 준비모임

대구대교구 평단협은 예술 단체가 주축이 되어 하느님께서 주신 예술적 능력을 발휘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대구가톨릭예술제를 개최(격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예술제 준비를 위해 6월 23일(금) 예술제 참여에 관심 있는 단체(문인회, 국악예술단, 미술인회, 사진회, 전례꽃꽃이연구회)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준비모임을 가졌다.

● 대구 꾸르실료 제27차 울뜨레이아 열어

대구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주간 김민주, 지도 배임표 신부)은 6월 6일 오전 9시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에서 제27차 교구 울뜨레이아를 개최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400여 명의 꾸르실리스타가 참석해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에서 서유석 신부(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지도)의 롤로(Rollo)를 시작으로,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최영수 대주교 주례로 사제단 공동집전 미사가 봉헌됐다. 이어 3부 우정의 시간에는 팀회합과 대리구별로 준비한 성극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4부에는 사도의 시간 및 성체강복이 마련됐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ME 은경의 해 기념 가족모임

부산교구 평협(회장 이정우 마르티노, 지도 황철수 바오로 주교) 회원단체인 부산 ME 협의회(회장 현순종, 강미숙)는 지난 6월 5일 기장체육관에서 '25주년 은경의 해 기념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철수 부산교구 보좌주교를



비롯, 교구 사제단과 700여 쌍의 부부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김명선 대표신부와 현순종·강미숙 대표부부, 박혁·이윤희 부부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가정 공동체'란 주제 발표에 이어

ME부부들은 그 동안 갈고 닦은 각종 장기자랑을 선보였으며 경품추첨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25주년을 기념, '부산 ME 25주년사'를 편찬했다.

● 부산교구 설정 50주년 앞두고 CI·엠블럼 발표

부산교구는 교구 설정 50주년(2007년)을 앞두고 교구 CI(Cooperative Identity; 심벌)와 엠블럼을 제작했다.



2007 천주교부산교구 설정 50주년

CI의 전체그림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성모마리아의 품안에 있는 자녀를 표현했으며 세 개의 원모양은 삼위일체와 묵주알을 상징한다. 두 개의 푸른 물결은 역동적인 파도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항구도시 부산과 울산을 나타낸다. 하늘색과 청색 물결무늬는 배를 상징적으로 표시하여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십자가 원은 순교자들의 신앙과 선혈을 상징했으며 붉은색 원은 바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성령의 힘으로 교구를 이끈다는 모습을 나타낸다.

한편 엠블럼은 50주년 슬로건인 '일어나 갑시다'를 형상화했다. 새로운 교구 CI의 의미를 내포하고 50주년의 숫자가 드러나도록 해서 교구 희년의 의미를 살렸다. 또한 붉은 십자가 원을 물결 위에 살짝 가려 마치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표현하여 교구가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복음화의 아침을 맞이하려는 의지를 담아냈다.

● 부산 가톨릭마라톤 동호회 창립 ‘예수님과 함께 달리’ 린다.’

본당별로 활동해온 부산교구 마라토너들이 6월 10일 부산가톨릭대 지산교정에서 ‘부산가톨릭마라톤동호회’ 창립미사를 봉헌했다. 교구는 1일자로 동호회를 교구 평신도 활동단체로 인준하고 오종섭(가톨릭센터 부관장) 신부를 지도신부로 임명했다.

교구내 11개 본당 소속 마라토너 120여 명이 가입한 마라톤동호회는 3년 전부터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며 친목과 형제애를 다져왔다. 동호회는 이번에 정식 인준을 받고 창립함으로써 회원수가 급증해 더욱 활기를 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승학(베드로, 만덕본당) 초대회장은 “예수님과 함께 달리면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장애우들과 함께 달리는 행사를 기획하는 등 신앙인 마라톤 동호회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동호회는 25일 오륜대와 구월산 일대에서 첫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설정 40주년 기념 체육대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박용기



필립보, 지
도신부 유
영봉 야고
보 사무처
장)는 6월 6

일 마산대학 종합운동장에서 교구설정 40주년 기념 교구장배 체육대회를 열었다. 교구장 안명옥 주교를 비롯해 사제, 수도자, 신자 등 1만 3천여 명이 함께 한 이번 행사에서 축구는 반송본당, 줄넘기는 장평본당, 족구는 칠암성당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 마산교구 설정 40주년 ‘합동 성모의 밤’

마산교구는 5월 30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교구 설정 40주년 기념 합동 성모의 밤 행사를 열었다. 교구장 안명옥 주교와 4천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입당과 묵주기도에 이어 성모신심 미사, 성모께 드리는 봉헌식 순으로 진행됐다.



안명옥 주교는 미사강론을 통해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생명에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3부 성모께 드리는 봉헌식에서는 참석자들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과 염원을 담아 레타레 중창단의 성모께 드리는 노래와 청년단원들의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 마산교구 설정 40주년 기념 가톨릭 여성대회

손에 손잡고 “우리는 하나”

생명 지키며 복음화 앞장서는 ‘여성사도’ 다짐
마산교구 가톨릭 여성들이 교구설정 40주년을 맞아 7월 3일 가톨릭 여성대회를 열고 하느님 자녀로서 여성 정체성을 되찾고, 생명과 가정 수호 및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여성 사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생명을 지키는 여성들이여! 일어서라’를 주제로 마산 MBC홀에서 열린 마산 가톨릭여성 대회에서 64개 성당 신자 1500여 명은 특히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3·6·9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하고 선언문을 봉헌했다. ‘3·6·9운동’은 하루 세 번씩 성호굿기, 생명의 중요성을 여섯 사람에게 전하기, 저녁 9시면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 돌보기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과 기수단 입장에 이어 마산평협 부회장이기도 한 마산 가톨릭여성협의회 김우매 요안나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해 교구 여성협의회 발자취를 담은 영상물 상영과 가톨릭 여성상 시상식, 강완숙 골룸바 연극 공연, 파견미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교구 사제단과 박용기 마산평협 회장 등 회장단과 한국평협 부회장인 오덕주 데레사 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회장 등 교회 인사들이 자리 함께 했다.

기념식에서 교구장 안명옥 주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거나 희생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등 모범적 삶을 살아가는 가톨릭 여성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김성악(안나, 월남동본당)씨는 4대에 걸쳐 교구 여성협의회 회장을 맡아 위상을 높이고, 이웃돕기와 성소후원, 미혼모의 집 ‘생명터’ 설립에 세운 공로로 반석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석한 박용기 마산평협 회장은 강완숙 연극이 특히 좋았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산 여성협의회 회원들이 여성 차원에서는 최고의 행사를 주관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거듭 높이 평가했다.

이날 대회장 입구에는 교구 여성협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미혼모 쉼터 ‘생명터’를 비롯해 생명과 여성 관련 쉼터 및 복지시설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소외된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작은 나눔에 동참을 호소했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안동농민회 풍년기원미사

“우리 쌀 함께 지키자”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본부(회장 김병원, 지도 김시영 신부)는 6월 5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들판에서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 주례로 풍년기원미사를 봉헌하고, 우리쌀 지키기에 힘을 쏟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

을 발표하고, △한·미 FTA, WTO 바로알기와 알리기 △ 밥상을 우리농산물로 바꿀 것 △패스트푸드 먹이지 않기 △



학교급식운동에 참여 △생명의 쌀 약정 △도 · 농 교류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미사 봉헌에 이어 참가자들은 풍양공소에서



▲ 풍년기원미사 후 우리쌀 지키기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도정공장까지 우리쌀 지키기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펼쳤고, 오리와 우렁이 넣기, 손모내기 체험, 대동놀이로 이어지는 도 · 농 한마당 잔치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목동 · 양천본당, 의정부교구 구리본당, 대구 수성본당 등 도시본당 신자들이 함께 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광주평협 활동]

● 최창무 대주교와 평협 임원의 대화의 장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스테파노, 지도신부 황양주 안토니오)는 6월 10일 광주대교구청 회의실에서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와 평협임원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김희중 총대리 주교와 사목국장 황양주 지도신부가 함께 한 가운데 최창무 대주교는 공의회 문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대한 말씀으로 평협 임원들을 격려해 주었으며, 이어 정기수 평협회장은 2006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평협활동 현황과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PPT자료를 통하여 보고한 후 장소를 유일회관으로 옮겨 나눔을 함께 하며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폭 넓은 대화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평신도를 위한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영성강좌

2006년 한 해 동안 광주대교구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매월 영성강좌를 마련해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5월 13일(토) 평신도 영성의 특성(강생의 신비) / 170여명
- 6월 10일(토) 새로 태어남과 거듭남, 성덕과 완덕 / 300여명



● 지구와 단체평협 활동

[지구평협 활동]

- 북부지구/임원연수회/5월 28일/문홍동성당/150여명

연수회 내용 : * 사목협의회 및 제단체 임원의 역할과 위상(문홍동주임 손병현 신부)

* 사목교서와 교회 위상 점검과 쇄신(70주년 사무국장 이정주 신부)

- 목포지구/합동성모의밤/5월 26일/KBS 스포츠홀/2,000여명

6.25 순교자 추모 합동미사/6월 25일/용당동 성당/700여명

[단체평협 활동]

* 국악인회/남구효사랑 국악공연/5월 7일/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우한 어르신들과 지체장애인들을 모시고 효사랑 국악공연을 두 차례 열었다. 그중 일반인들에게는 유료공연을 해서 마련된 수익금으로 결식아동돕기에 앞장 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 성령쇄신봉사자회/2006년 전국성령대회/5월 16일/구동실내체육관/2,600여명



• 주제: 성체로 하나되는 성령안의 삶, • 강사: 다니엘 게그넌

* 운전기사사도회/창립17주년 기념식 및 체육대회/5월 24일/평생교육원

* 여성산악인회/합동산상미사/6월 9일/무등산/100여명

* 신심단체 교구장의 사목방문

교회 안팎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교구 단위 신심단체들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격려하고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교구장의 사목방문이 실시되었다.

- 성령쇄신봉사자회/6월 15일

- 꾸르실료, 레지오마리애/6월 19일

● 교구 주보와 간행물 전시회

광주대교구 설정 7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와 5월 홍보 주일을 맞이하여 ‘교구 주보 및 간행물 전시회’가 5월 27일 마련되었다. 이는 교회 간행물들이 교회가 지향하는 일치된 방향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교회의 홍보만이 아닌 역사를 보존케 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서 평협과 여성위원회에서는 회보와 50년사 등을 출품해 적극 참여했다.

● 6·15민족통일대축전 종교부문상봉

6·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

전으로 마련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북 종교인 상봉행사가 광주 무등파크호텔 연회장에서 있었다. 이 날 식전행사로 평화기원 예식, 종단 연합합창단의 합창, 범쾌(불교)공연이 있었으며 본 행사에서는 종단별로 북한 참석자들을 소개한 후 강지영(바오로) 북측대표의 대표연설과 남측 강신석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총대리 주교의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어 진행된 종단별 만남의 시간에 북측에서는 대표연설을 한 강지영 형제와 리순옥(카타리나) 자매가, 남측에서는 광주대교구 김희중 총대리주교와 광주교구설정 70주년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이정주 신부를 비롯하여 8명의 신부와 5명의 수녀가 참석했으며, 평신도는 광주평협의 흥의웅부회장, 이미현부회장, 서정권 사무국장, 황순자 교육부장이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주평협 역대회장 임원 정진대회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동호 바오로, 지도신부 조정오 요셉 총대리)는 지난 6월 10일(토) 윤호관에서 전주평협 역대 회

장·임원 정진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역대 평협 회장, 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고 평신도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마련사업에 각 본당 평신도들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이 회합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신축기금 마련 바자회 등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행사는 조정오 총대리 신부의 교구현황 설명과 참석자 소개에 이어 교구 센터 신축홍보 영상물 상영 후 버스 2대로 나누어 타고 센터 신축현장과 새로 단장한 초록바위, 서천교 성지를 둘러보았다. 이어서 봉헌한 미사 강론을 통해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성서 말씀대로 “궁핍한 가운데서 생활비 모두를 다 넣은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며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하느님의 눈에 맞추어 미래를 바라보며 원숙한 신앙인으로서 모든 언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동호 회장 전주 교통방송과 대담

전주교구 평협 서동호 회장은 4월 28일 전주 교통방송 ‘스튜디오1025’에 출연해 오전9시

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가운동'에 대해 대답을 나누었다.

서동호 회장은 이 대답프로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전제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소공동체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이 건강할 때 그 사회가 또한 건강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서 천주교 평신도들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정신운동이요 실천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990년대 급격한 물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며 이기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만연된 불신풍조를 정화시켜보자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내 탓이오"를 소리 없이 외치며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던 정신운동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생각도 똑바로, 말도 똑바로, 행동도 똑바로 하자는 실천운동의 하나로 '아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회장은 가정에서는 신뢰와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하며 사회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소외계층을 양산하는 사회가 아닌 상식이 통하고 좌우쏠림이 없이 균형이 지배하는 사회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덧붙였다.

● 전주천 가꾸기 운동

전주교구 평협은 2006년도 중점사업 중 하나인 전주천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 장옥희(실비아) 부회장의 주관 아래 5월15일(월) 오전 전주시내 30개 본당 100여명과 함께 치명자산 광장 앞에서, 초록바위, 서천교(조율호 요셉 성

인 치명터)앞 구간까지의 전주천변을 4개조로 나누어 쓰레기를 줍는 등 전주천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

평협은 전주시내 본당과 제 단체를 주축으로 매달 한번, 한 본당 또는 한 단체씩 돌아가면서 전주천 환경정화사업을 벌이기로 연초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이날 두 번째로 각 본당 여성부장과 임원들이 이 운동에 나선 것이다.



● 전주교구 성령쇄신대회

전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회장 안득수 마리오)는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아 5월29일 전주 우전성당에서 신자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성심, 성모성심 우리의 행복' 이란 주제로 교구성령대회를 개최했다.

찬양과 율동,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간구한 이번 대회는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성당 다니엘 개그년 신부의 말씀과 기도, 치유 예절을 통해 성령의 현존에 대한 믿음, 영적 자유와 참 평화를 체험하는 자리가 됐다.

개그년 신부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면 참 자유와 기쁨 가운데 역동적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과 관련해 신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모든 세력들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평협, 인도네시아 재난지역에 의연금 전달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송상순 베드로, 치도신부 고병수 요한)는 지난 5월27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 반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가 제주교구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했다.

제주평협 송상순 회장은 교구 사무처장 겸 관리국장 윤성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와 함께 7월 6일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해 스마랑 교구장 수아리오 하르조아트모조 이냐시오 주교에게 7,300만원을 전달했다. 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이곳 지진 피해 소식을 듣고 지난 6월 11일 주일 전 본당에서 2차 헌금을 실시해 이날 성금을 전달한 것이다.

한편 제주교구는 2003년 사순시기에 모은 사랑의 헌금을 전란에 지친 이라크 바그다드 시민들에게 전했으며, 2004년에는 청주교구 폭설피해 지역에, 그리고 2005년에는 춘천교구 양양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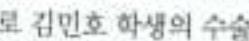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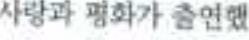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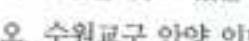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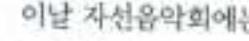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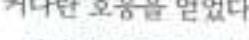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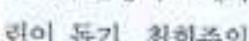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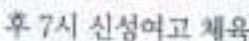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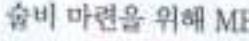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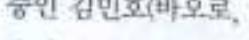
● 사목회 임원 갑마영성 프로그램 연수회 실시

제주교구 평협은 교구 사회복지회 주관으로 단체운영관리를 위한 리더쉽과 컨설팅 교육(갑마영성 트레이닝)을 6월 10일~11일 1박 2일간 서귀포 면령의 집에서 실시했다. 갑마영성의 전 과정은 본당의 비전 설정과 본당의 사목지침에 따른 사목계획, 본당 신자들의 신앙재교

육훈련과 본당과 외부와의 관계망인 네트워크 그리고 신앙인 공동체의 팀워크와 의사소통, 본당 조직의 구조와 문화, 본당의 시각디자인의 질, 본당의 매력과 이미지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과정은 2박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연수회에서는 그 중에 몇몇 과정을 하게 됐다. 이번 연수에는 16개 본당의 사목회 임원과 교구평협 임원 등을 포함해 총 49명이 참가했다.

● 제주 중앙본당 백혈병 돋기 최희준 사랑의 음악회



● 교구 여성연합회 25주년 기념행사와 피정

제주교구 여성연합회가 창립(1981. 2. 26) 2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이사들 절음의 집에서 25주년 기념행사와 피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고병수 지도신부와 역대 회장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살례시오 수도회 대전 수련장 양승국 신부의 강의로 시작됐다.

지난 25년을 돌아보며 역대 회장들의 경험담을 나누기도 한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 살리기와 사랑 운동으로 369 스티커를 부착한 개인 용 컵을 배부함으로써 참석한 165명의 여성 선자들로부터 369운동에 들어갔다.

369 운동이란 3 - 하루 세 번 공들이기(직려, 칭찬, 사랑, 미소), 6 - 생명과 환경 지키기(실천과 전달), 9 - 9시에 기도하기(가족 기도 및 복음 나누기)이다.



● 교구 이주사목위, 이주노동자 한마당 축제

평신도 단체 활동이 주축을 이루는 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회장 문대영, 지도 문창우 신부)는 4월 30일 제주시 탑동 광장에서 '제1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를

열었

다.
가톨
릭 의
사회,
라 파



엘약사회, 교구 여성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 날 축제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가족, 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축제에서는 농구, 족구, 민속놀이 등 체육대회 행사와 필리핀 음식장터가 마련됐다. 교구 명예에서는 송상순 회장 외 임원들이 참석해 행사가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바라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 교구 성모의 밤

지난 5월 18일(목) 밤 9시 제주교구 성모의 밤 행사가 이시동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교구장 강우일 주교와 사제단 합동 미사로 거행됐다. 우천 관계로 실내 성당에서 미사, 묵주기도, 성모의 밤 신심행사 비롯한 모든 일정이 진행된 이날 밤 행사에는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 약 2,4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주교는 강론을 통해 급속한 학가족화와 개인주의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요즘 심각한 현상인 저출산, 낙태, 노인문제 등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주교는 "성모님의 중재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우리 교회도 생명운동으로 차녀 셋 낳기, 노인 돌보기 등 병들어가는 이 사회에 자유를 전하는 도구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 제6회 가톨릭포럼

‘다민족 다문화의 길목에 들어선 한국사회의 과제’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회장 김홍, 지도신부 김만수)는 6월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민족 다문화의 길목에 들어선 한국사회의 과제’란 주제의 포럼을 열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과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도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제도적 장치와 시민의식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진석 추기경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가톨릭 언론인들이 사회 통합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며, 매스컴 종사자들은 사회 사건과 흐름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보도하라”고 당부했다.

한홍순 평협 회장은 포럼 축사에서 “오늘 가톨릭언론인협의회가 여섯 번째 포럼을 개최하면서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사실 세계화의 조류 속에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 다민족·다문화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서로를 중요하게 하며 더욱 중요로운 보면

문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오늘이 포럼은 세계화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여 ‘인종, 성별, 국적, 종교나 사회적 신분의 차별 없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는’(사목현장, 60항) 인간적인 생활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표현”이라고 말했다(축사 요약문 발췌).

포럼 참석자들은 이날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국민의 1.7%에 달하는 테 주목하고 이방인을 포용하는 정책과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 국민 중에는 이제 필리핀계 한국인, 베트남계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민족’과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교구 이주노 동자사목 전달 강승수 신부는 제도적, 문화적, 복지적 측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진석 추기경과 기념촬영하는 서병희 기록부 모임 참석자들

▲우리나라는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이방인을 포용하는 제도와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사진은 인천교구 외국인 노동자 신당소가 마련한 이시가 음식나눔 전시에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 풍어선은 자료사진
▲발제하는 한건수 교수 ▲김승수 신부

폭넓은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새 회장은 미국인 카렌 헐리(48)씨가, 부회장은 호주인 브렌다(71)씨가 선출됐다.

한편 이번 회의 중 1일 봉헌된 미사에서 한국 참가팀이 선보인 전래춤이 특히 44개국 600명 이 넘는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는 등 회의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대회에 한국에서는 오덕주 회장과 원이숙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과 미국 교포 선거를 모른책은 감으로 한 이재도 신부. 원책은 미국에서 연수 중인 서울대교구 관리기 신부

오덕주 세계가톨릭 여성연합회 아태 지역 회장,

“이웃 나라와 연대해 복음화와 여성 인권신장에 힘쓸 터”



“세계 가톨릭 여성계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 세계 총회에서 특히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으니까요. 총회 기간 내내 다른 나라 참석자들이 한국과 한국교회 발전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죠.”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총회에서 아·태지역

회장으로 선출된 오덕주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회장은 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년 전 회의 때보다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높아졌다며 그에 걸맞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특히 극동지역 복음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회장은 “그러나 한국은 발전상과는 달리 국제 갑작이 뛰떨어졌다”며 무엇보다 언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속 젊은 여성 평신도를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회장으로 선출된 후 오회장은 곧바로 오세아니아,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세분화해 3개 지역 대표를 뽑아 지역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아·태 지역은 특히 빈부차가 심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지역도 넓어서 그 다양함 가운데 것 가락 문화권 등 비슷한 나라끼리 3개 영역으로 묶었다고 설명한 오회장은 “회장 후보 3명 중 2명이 아·태지역에 속하고, 부회장에 호주 사람이 선출된 사실은 이 지역의 가톨릭의 영향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아직 큰 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할 만한 공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오덕주 회장은 1950년대 초에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 일리노이주립대학 학부와 콜롬비아대학 대원에서 사회학을 연구했으며, 오랜 동안 서울 가톨릭 여성연합회와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회장, 서울평협과 한국평협 부회장을 맡아오고 있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꾸르실료 발상지 스페인 첫 성지순례 행사

“초창기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



▲ 꾸르실료 발상지 성지순례(2007년 5월 27일)
꾸르실료 창시자들이 모보 순례 마지막으로
도착한 산티아고 대 꼴포스텔리 대성당 앞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주간 심재
기, 지도선
부 서유석)
는 꾸르실
료 한국 도
입 40주년
(2007년)을
앞두고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제1차 꾸르
실료 발상

지 성지순례 행사를 주관했다.

꾸르실료 창시자들의 뜻을 되새기고 꾸르실리스타로서 소명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순례에서 50여 명의 참가단(단장 김진홍)은 꾸르실료 발상지인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산티아고 대 꼴포스텔라까지 1700여km 구간을 순례하며 세상 복음화에 앞장서는 꾸르실리스타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순례단은 특히 태극기와 꾸르실료기를 앞세우고 매일 10km 정도의 도보순례를 병행, 대다수 가톨릭신자인 스페인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또 △꾸르실리스타의 회개와 성화 △조국의 평화와 통일 △가정의 성화를

자랑으로 묵주기도 3만단(1인 하루 평균 75단)을 바쳐 순례의 의미를 더했다. 순례단은 아울러 1km당 10원씩을 봉헌한 것을 모아 가톨릭 선교사 차량 후원단체인 미바(MIVA)회에 163만원을 전달했다.

서유석 신부는 “꾸르실료가 한국에 도입된 지 40년이 흐르면서 처음의 꾸르실료 정신이 많이 뇌색된 것 같아 꾸르실료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에서 발상지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됐다”며 앞으로 매년 실시할 꾸르실료 발상지 성지순례에 특별히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꾸르실리스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1967년 5월 한국에 도입된 꾸르실료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3만5000여 명의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했으며, 꾸르실리스타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5월 한 달 동안 성모성월 특강

성모성월을 맞아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삼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윤병길 세례자 요한)는 명동성당에서 성모성월 특강을 실시했다.

‘삼종기도’를 대주제로 해 5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특강에는 매주 2천여 명의 신자가 참석했으며, 첫째 주에는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채리 대주교가 ‘성모영보’를 주제로 동정녀 마리아의 하

느님께 대한 “네”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둘째 주에는 ‘순명’을 주제로 김지영(미아 3동성당 주임)신부가, 셋째 주에는 ‘육화’를 주제로 심상태(한국 그리스도교사상연구소 소장) 목사님이, 넷째 주에는 의정부교구장 이한택 주교가 ‘천교, 통공’을 주제로 강의한 데 이어서 다섯째 주에는 ‘현존과 실천’을 주제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강의해 이번 특강을 마무리했다.



5주 동안 실시된 이번 특강에 참석한 레지오 단원과 신자들은 레지오 마리에 시작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친 후 열심히 강의를 들어 성모성월을 더욱 뜻 깊게 지냈다.

● 청년 레지오 학교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5월 1일부터 5회에 걸쳐 제2회 청년 레지오학교를 개설해 청년 단원의 교본 교육을 실시했다.

첫째 날(5월 1일) 강의에서 빙종섭 세나뚜스 단장은 ‘부르심과 기원’에서 부르심(召命), ‘레지오의 기원’과 ‘전래 어의(語意)와 이름’에 대해 교육했다. 둘째 날(5월 8일) 한희운(아네스) 세나뚜스 회계는 ‘주회합의 규범 및 순서’와 레지오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에 대한 강의를 했다. 셋째 날(5월 15일)에는 이용

일(윤일요한) 세나뚜스 부단장이 레지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넷째 날(5월 22일)에는 김차희(세라피나) 세나뚜스 국제서기가 ‘레지오의 목적과 의무’를 다루었다. 마지막 날 한관설(미카엘) 세나뚜스 서기는 ‘레지오의 사도직’의 주제로 사도직의 존엄성, 레지오와 평신도 사도직, 본당에서의 레지오, 단원 양성을 위한 도제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윤병길 지도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5주 동안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늦은 시간에 열심히 참석해주신 모습이 좋았으며, 아끼던 보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분 좋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세나뚜스 간부의 소중한 체험의 나눔이 이루어졌다. 상대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감싸주고 이해하며 땀 흘려 봉사할 때, 공동체는 성장하고 단원의 성화는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 레지오 학교는 151명의 청년단원이 수료증을 받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파견됐다.

● 세나뚜스 평의원 연수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평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를 실시했다. 첫날 개회미사에서 윤병길 지도신부는 “꼬마씨움 간부들

은 이번 연수를 통해 꾸리아와 단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기르자"고 강조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흥근표(바오로, 세종로 주



임) 신부는 '단원의 역할'을 주제로, 둘째 날에는 유행길 지도신부의 "레지오의 비전"을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다. 팽종섭 단장은 '레지오 마리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의했으며, 서울대교구 서서울 담당교구장 대리 조규만(마실리오)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먼저 들어온 다른 단체보다 레지오 마리에는 도입 50주년 행사에서 보았듯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격려하고, 요한복음(15,1-8) 포도나무비유를 인용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며 주님 없이는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어떤 수고도 헛되다. 각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전체로 모여 있을 때 포도나무 안에서 일을 내고 열매를 맺는 단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꾸리아 간부 특별교육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6월 7일부터 9일 까지 꾸리아 간부 특별교육을 성 나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실시했다. 74명의 꾸리아 간부가 참석한 이번 교육은 개회미사에 이어 양

주엘(베드로) 신부가 '구원의 역사'를 강의했는데, 구원의 역사성과 구세사와 가톨릭교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성경과 함께 살펴보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강의는 서울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 담당 정태영(멘라니오) 신부가 '기도생활'을 강의했다. 셋째 강의는 가톨릭대학교 최경선(소피아) 박사의 성모신심에 대한 교육으로 이어졌고,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와 잘못된 성모신심 내용을 강의했다.

넷째 강의는 윤병길 서울대교구 세나뚜스 지도신부가 전례생활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전례 용어들의 어원과 전례의 잘못된 개념, 전례 운동, 전례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팽종섭 세나뚜스 단장은 '레지오의 정체성,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팽단장은 이날 "영적 군단으로 부름 받은 우리 단원들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도생활과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느님께 맡겨드리자고 강조했다.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애 피정

전국 시각장애인선교회(회장 강성영 요한 보스코, 지도 김경화 베네딕토 신부)의 레지오 단원 140여명이 5월 3일과 4일 아들 동안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영보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가졌다. 수원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피정에서는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회



장 이기수
신 부 가
‘성격유형
알아보기’
와 ‘올바
르게 성사

보는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각 선교회별로(전국 11개 교구 12개 시각장애인선교회) 레지오 활동보고를 하며, 신앙체험을 통해 성모님의 군대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 2/4분기 전국 회장단 회의



전국
시각장
애인선
교 회
회장단
회의가

6월 8일 부산에서 있었다. 부산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월 대구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가 마련하는 수련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었다.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

● 제1회 회장단 회의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회장 황규열 토마스, 자도신부 김덕근)는 지난 6월 9일 광주대교구 교구청에서 올해 첫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중간 회계보고와 각 교구 현황보고가 있었다.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 한국이사회

● 7월 1일 이사회 열어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정은화 다미아노)는 7월 1일 올해 두 번째 이사회를 가톨릭회관 7층 교구 사목국 회합실에서 열었다.

전국 14개교구 회장들이 빙첸시오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눈 이날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청년 해외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교본과 회칙개정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번역해온 결과를 보고하고, 9월에 세미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날 회합에서는 또 언제나 빙첸시오 성인의 영성을 따라 서로 배려하고, 내것을 먼저 나눠주는 빙첸시안이 되자며 마음을 모았다.



▲ 2/4분기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회의 모습

● 세계 종이사회 아시아 조정관 내한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세계 종이사회 모리스 용 아시아 조정관이 6월 25일 한국이사회를 방문했다.

모리스 용은 홍콩 사람으로 이번 방문에서 한국이사회가 세계종이사회 진물 지분 매입을 해



▲ 모리스 왕과 그의 부인 안나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또 한국이 수혜국가에서 이웃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흔쾌히 받아들이 이 교구 다니 주교와 8명의 평신도 등 12명이 춘천교구를 방문한 것이다. 다니 주교 일행은 죽림동 주교좌성당에서 있은 “니코데모 노인대학” 미사를 시작으로, 철원 월정리, 곰실공소 등을 둘러보고 5월 26일(금) 일본으로 돌아갔다.

성장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이사회를 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방글라데시를 지원해주기로 돼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동생

■ 춘천교구 평단협 김승선 회장, 일본 사이타마교구 대표단과 만나

춘천교구 평협 김승선 회장은 지난 5월 23일 춘천을 방문한 일본 사이타마교구 관계자들을 만나 한일 교회 평신도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사이타마교구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교구와 비슷한 여건에 놓여있는 춘천교구를 방문하고 싶다는 요청을 춘천교구(교구장 장의 주교)가



▲ 춘천교구를 방문한 사이타마 교구 관계자들과 춘천교구 관계자들이 죽림동성당을 방문했다. 오른쪽 두번째 김승선 춘천평단협 회장

■ 마산교구 여성협의회 김우매 회장 “가톨릭 여성 소명, 저력을 확인 계기”



교구 설립 40주년 기념 가톨릭 여성대회를 무사히 치르고 난 마산교구 여성협의회 김우매(요안나, 창원 사파동성당) 회장은 여성의 눈과 손, 힘으로 직접 기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가톨릭 여성들이 스스로 소명과 청체성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여성협의회 저력을 비로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김우매 회장은 특히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3·6·9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구 여성협의회가 미혼모 쉼터인 ‘생명터’를 운영하는 만큼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 반대와 버려진 아이를 품에 안는 입양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고 강조했다.

■ 전국평협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구호 성금

한국평협은 6월 20일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파당(padang)교구장 시트모랑 주교에게 미화 1천달러를 송금했다.